



2022. 10
제17호 e-세계농업

- ❖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 국제 농업 정보
 - (1) 글로벌
 - (2) 미국
 - (3) 유럽
 - (4) 일본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구위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충북대학교 송양훈 교 수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 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락처

허 장 편집위원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상현 편집부위원장 (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장혜진 편집간사 (연구위원)

jhyejin@krei.re.kr

(Tel. 061-820-2125)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¹⁾

염 정 완 *

☞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농식품 교역 시장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을 검토하여 對중국 농식품 수출 기반을 마련 및 확대할 필요 ☞

1 개요

- 2022년 8월 한·중수교는 30주년을 맞이하였고,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38배, 수출은 49.1배, 수입은 29.4배 증가함.²⁾ 또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로 농축산물 시장도 개방됨. 하지만, 사드(THAAD) 배치,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발생 등 국내외 통상 환경의 변화로 2016년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56억 달러³⁾ 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액은 2021년 65억 달러로 2020년과 비교하여 18.4% 증가하였고, 동기간 한국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7.4%,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2.2% 증가함. 2021년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 증가는 가공식품 및 임산물의 수출입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남. 2021년 한국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농축산물 교역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동기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도 증가하여 농업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농업 분야에서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내 통상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⁴⁾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2000년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중국 국민의 농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 증가와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농식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통상 환경 변화와 농식품 관련 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youmjw@krei.re.kr).

보고는 2022년 4월에 발간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1) 중국 법, 규정에 관한 한국어는 번역은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을 참고함.

2) 한국무역협회(2021년)의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을 참고함.

3) 해당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액을 평균한 수치임.

4)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수입 규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한국의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의 최신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식품법(Food Laws), 식품표시 요건(Labeling Requirements), 포장 규정(Packing and Container Requirements) 등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2 식품법(Food Laws)

- 중국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은 크게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농산품 품질안전법(Law on Farm Product Quality and Safety/中華人民共和國農產品質量安全法), 소비자권익보호법(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수출입상품검험법(Law on the Inspection of Import and Export regulatory Commodities/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등이 있음.

2.1.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

- 중국은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개정된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총10장 1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중국 내 식품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통합(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⁵⁾)
 - 2) 식품 생산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 3) 부적절 식품으로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 명시
 - 4) 위험 예방 기능 제고
 - 5) 특수식품(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 강화
 - 6)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형사 처벌 포함) 명시
-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9년 식품안전법 실시조례⁶⁾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 중국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과 중국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 내용을 법률화함.

5)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법률법규 초안 작성, 식품 행정허가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소속 기관임.(한국무역협회의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를 참고·인용함)

6)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총10장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2.2. 농식품 품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출입상품검험법

- 2006년 시행된 농식품 품질안전법은 식용 농산물과 농업 투입물(농약 및 비료)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리 조치 내용을 법률화하였고, 해당 법에 규정된 상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면 식품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됨. 중국은 2022년 농식품 품질안전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은 위험 관리 및 국가표준 개발, 생산, 포장 및 라벨링, 감독,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총 8장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201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 제품 리콜,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화함.
- 1989년 제정된 수출입상품검험법은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의 실시 조례는 2017년 3월 개정됨. 수출입 상품 목록(검사 대상)에 기재된 모든 수출입 상품(식품 포함)은 수출입상품검험법을 준수해야 하고, 상품별 통관 가이드라인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해당 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3. 농식품 수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타 법령

- 식품안전법, 농식품 품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출입상품검험법 외 중국 내 농식품 수입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령(실시조례, 규칙, 표준 포함)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제정된 수출입동식물검역법은 중국으로 출입국 또는 중국을 통과하는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하거나 운송하는 컨테이너, 포장 재료, 깔개, 동식물 전염병 및 감염 지역으로부터의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역·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는 2017년 출입국 검사검역절차 관리 규정을 시행함. 해당 규정은 수입품의 출입국 검역·검사에 대한 검역·검사 절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검역·검사 신고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및 실험실 검역·검사, 동식물 격리 검역, 검역 처리(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평정, 면장발급, 서류정리 및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사 및 소독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입 조치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고, 중국 내 성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농식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관련한 조치에 대해 산발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입항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항과 콜드체인 시설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1) 해관총서 공고 [2020] 1037): 해외 제조업체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GACC)는 긴급 예방 조치의 수단으로 해당 업체에 대하여 1~4주간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 2) 콜드체인 기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22년 1월 30일 국무원은 콜드체인 식품 생산 및 운영에서의 코로나-19 예방·통제와 콜드체인 식품 생산 및 운영 절차에서 코로나-19 방제·소독에 대한 업데이트 된 기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3) 국무원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위원회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예방 및 종합 소독 작업 계획을 발표함.

3 식품표시(Labeling) 요건

3.1. 일반 요건

■ 식품 생산 라벨링은 식품안전법, 식품표시의 감독·관리 조치 및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식품안전법에 의거 예포장식품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함.

- 1) 명칭, 규격, 순 함량, 생산 일자
- 2) 성분 또는 원료 배합표
- 3) 생산자 명칭, 주소, 연락처
- 4) 품질보증기한(유통기한)
- 5) 제품 표준 코드
- 6) 보관조건
- 7)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국가표준에서의 범용명칭
- 8) 생산허가증 번호(수입, 시설 등록 번호)
- 9) 영유아 조제분유 및 특정 제품(농업생명공학의 파생 제품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 또한, 중국 내에서 유통(생산,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표시 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시행령 102)을 따라야 함. 해당 규정은 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1) 식품 및 포장에 부착, 인쇄, 표시하는 식

7) 해당 공고는 2020년 9월 21일에 G/SPS/N/CHN 1173으로 WTO SPS 위원회에 통보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품의 명칭, 2)품질 등급, 3)상품 수량, 4)식용방법 및 사용 방법, 5)생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문자, 상징, 숫자, 도안 및 기타 설명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 2020년 중국은 식품표시 관리규정의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통보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식품표시 요건의 해당 범위를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 식품 첨가물, 특수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2. 수입 식품표시 요건

- 수입 식품에 대한 표시 요건은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해관총서 시행령 249)을 따라야 함. 해당 관리방법은 기존 수입 식품에 대한 표시 요건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입 식품의 포장, 라벨, 표시는 중국의 법률, 규정,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제품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문으로 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선 및 육류(냉동) 수입 식품의 내외부 포장지에는 증문 및영어(또는 증문 및 해당 수출국의 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또한, 라벨은 내외부 포장지에 뚜렷하고 식별하기 쉽게 고정되어 있어야 함. 외부 포장지는 제품 규격, 제품 위치(특정 주/성/도시), 목적지, 생산 일자,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의 중국어 라벨이 포함되어야 함. 목적지는 반드시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수출국(지역)의 공식적인 검역·검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2)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최소 판매포장에는 증문 라벨이 반드시 인쇄되어 있어야 함 (스티커 불가).

- 중국은 2018년에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 수출입 예포장식품 표시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조치를 통보함. 해당 조치는 식품 생산자의 책임, 라벨링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라벨 검사 시 검역·검사 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됨.

- 2019년 해관총서는 수입 제품 표시 검토 요건을 변경한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선적(첫 번째) 전 해관총서에 수입 식품 라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됨. 다만, 부적합 라벨이 발견되면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을 억류, 폐기, 또는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은 2022년 1월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내외부 포장 라벨에 해외생산 기업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예포장식품 라벨링에 대한 주요 국가 식품 표준을 발표함. 2020년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xxxx)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고, 2021년에는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 초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함.

표 1. 라벨링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1년 4월 20일	2012년 4월 20일	GB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 (预包装食品标签通则)
2011년 10월 21일	2013년 1월 1일	GB28050-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2013년 11월 29일	2015년 6월 1일	GB29924-2013	식품첨가제표시 통칙 食品添加剂标识通则
2013년 12월 26일	2015년 5월 1일	GB13432-2013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 특수 영양식품 라벨 (预包装特殊膳食食品标签)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를 재인용함.

4 포장 규정

- 식품안전법은 "식품 및 첨가물을 포장하거나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종이, 대나무, 목재, 금속,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 섬유, 화학 섬유 또는 유리로 만든 도료"를 식품 포장재와 용기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직접 소비되는 식품은 작게 포장해야 하고, 무독성이고 깨끗한 포장 재료와 용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식품의 저장, 운송 및 적재/하역에 사용되는 용기는 식품의 깨끗한 상태 유지와 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한 용기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식품 포장에 관한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조치로 관련 국가표준을 발표함.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도한 포장은 포장 층수, 포장(내부) 공간, 포장 비용 등이 정상적인 요건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기 위한 용어, 정의, 요건, 규칙 등을 명시한 국가표준(GB23350-2021)을 발표하였으며, 판매용이 아니거나 선물용의 경우 해당 국가표준을 따르지 않음.
- 2021년 중국은 소독제, 식품접촉을 위한 고무 재료 및 제품, 식품접촉을 위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GB 4806.7)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1) 소독제 국가표준: 식품 및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원료, 관능 특성, 위생 지수, 소독제 라벨에 대한 안전 요건 등 명시
- 2) 고무 재료 및 제품 국가표준: 고무 재료 및 제품에 대한 범위, 용어 및 정의, 기본 요건, 원료 요건, 관능 요건, 물리적·화학적 지표, 기타 기술 요건, 용출시험 및 라벨링 요건 등 명시
- 3)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국가표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재료, 가황 처리되지 않은 제품, 전분 기반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등은 해당 국가표준을 따른다. 해당 국가표준은 식품접촉을 위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의 용어 및 정의, 기본 요건, 기술 요건 및 라벨 요건 등 명시

표 2. 식품 포장 및 용기 관련 위생·안전 기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4930.2-2012	소독제 (消毒剂)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1676-2012	식품 용기 점착방지용 실리콘 도료 (有机硅防粘涂料)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1677-2012	음료캔 내면용 수용성 에폭시 도료 (易拉罐内壁水基改性环氧树脂涂料)
2012년 5월 17일	2012년 11월 17일	GB9686-2012	식품용기 및 탁상식기 내면용 PA 및 에폭시수지 코팅 (内壁环氧聚酰胺树脂涂料)
2011년 11월 21일	2011년 12월 21일	GB9684-2011	스테인리스강 제품 (不锈钢制品)
2015년 9월 21일	2016년 9월 21일	GB31603-2015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 생산통용위생규범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5년 9월 22일	2016년 9월 22일	GB31604.1-2015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 이행 시험 통칙 (食品接触材料及制品迁移试验通则)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4806.1-2016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 통용 안전 요구 (食品接触材料及制品通用安全要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9685-2016	식품접촉용 허가물질목록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用添加剂使用标准)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3-2016	에나멜 제품 (搪瓷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4-2016	도자기 제품 (陶瓷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5-2016	유리 제품 (玻璃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6-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수지 (食品接触用塑料树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7-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塑料材料及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8-2016	식품 접촉용 종이, 판지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纸和纸板材料及制品)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9-2016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金属材料及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10-2016	식품접촉 도료 및 코팅 (食品接触用涂料及涂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11-2016	식품접촉 고무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橡胶材料及制品)
2021년 9월 7일	2022년 7월 7일	GB31604.8-2021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의 용출시험 食品接触材料及制品总迁移量的测定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5 식품 첨가물 규정

5.1. 식품 첨가물

- 중국의 식품 첨가물 승인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H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에 첨가 가능한 첨가물은 식품안전 국가표준(GB2760-2014)에 명시되어 있는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국가표준은 현재 개정 중에 있음.
- 중국에서 식품 첨가물 허가 및 등재된 첨가물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조치(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행령 73)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온 첨가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첨가물을 허용 첨가물 목록에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함. 첨가물 관련 신청 절차 및 재료 요건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첨가물 생산은 시설 운용 허가증에 "식품 첨가물 생산"이 기재된 시설만 생산할 수 있음.
- 중국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사용된 수입 제품 관리를 위해 해관총서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입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검사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에 따라 수입기업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포함한 수입 요청서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승인하면 수입 허가증이 발급되고 수입자는 통관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입국항의 검역·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표 3.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1년 4월 20일	2012년 6월 20일	GB2760-2015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 (食品添加剂使用标准)
2013년 11월 29일	2015년 6월 1일	GB29924-2013	식품 첨가제 표시 통칙 (食品添加剂标识通则)
2011년 7월 15일	2011년 9월 5일	GB26687-2011	식품 첨가제 혼합제제 통칙 (复配食品添加剂通则)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9685-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 표준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用添加剂使用标准)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7-2018	식품 첨가물 생산 통용 위생 규범 (食品添加剂生产通用卫生规范)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5.2. 향료 및 영양 강화제

- 중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착향료(Flavoring substances)와 향료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최근 시행되고 있음.
- 영양 강화제는 식품의 영양적 성질 향상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천연·인공 영양소 및 그 밖의 영양 성분을 의미함. 중국은 2012년에 식품 영양 강화제 국가표준(GB14880-2012)을 발표했고, 해당 국가표준은 영양 강화제에 대해 정의하고 식품에 첨가 가능한 강화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양 강화제 또는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식품의 영양 성분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식품 영양 강화제 국가표준을 따라야 하고,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시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GB2760-2011)을 준수해야 함.

표 4. 착향료 및 향료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29938-2020	식품용 향료 통칙 (食品用香料通则)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30616-2020	식품 첨가물 향료(복합 맛) (食品用香精)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6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6.1. 살충제

- 식품안전법은 살충제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잔류물이 오래 남는 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품에 관한 연구와 잔류물이 적은 고효율 및 저독성 살충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2017년 중국의 국무원은 농약 관리 조례를 발표하였고, 해당 규정에는 살충제의 등록, 생산, 유통,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중국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A)의 농약 등록을 위한 행정조치, 농약 생산 및 허가에 관한 행정조치, 농약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조치 등 여러 행정조치가 존재함.
- 중국 내의 농약 생산, 운영, 품질 감독은 중국 농업농촌부의 재배업관리사(농약관리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배업관리사(농약관리사)에서 농약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제공함. 또한 중국 농업농촌부 산하기관인 농약검사센터(China Pesticide Information Network; ICAMA)에서 농약 등록, 품질 관리, 생물 검정 및 농약 잔류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6.2. 농약 최대잔류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

- 중국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허용 국가표준(GB2763-2021)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국가표준은 농약 564종의 10,092가지 MRL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농식품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동안 식품에 포함된 농약(살충제, 동물용 의약품)의 MRL 항목을 15,000가지로 확대할 계획임.

6.3. 동물용 의약품(Veterinary Drugs)

- 중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 생산, 유통, 수출입, 활용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고, 농업농촌부의 가축수의사국이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농업농촌부 산하기관인 중국수의약품감독소(수약평가센터)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활용에 관한 평가, 검사, 감독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모니터링, 동물용 의약품 국가표준 개발을 담당함.

8) 해당 국가표준은 기존의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허용 한도(GB2763-2019)'를 대체하는 국가표준임.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2022년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관총서는 수입 동물용 의약품 목록을 업데이트한 공고 507을 발표함. 업데이트된 목록에는 82개의 수의사 약품과 해당 약품에 대한 HS 코드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공고에 의거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농업농촌부 또는 지역 관련 당국에 “수입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통관 양식”을 제출해야 함.
- 2019년 중국의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최대잔류허용 기준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31650-2019)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은 가축, 가금류, 수산물, 꿀벌 제품 등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267종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중국은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최대잔류허용 국가표준에 41종의 동물용 의약품을 추가를 위한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함.

6.4. 진균독(Mycotoxins)

- 2017년 중국은 식품 중 진균류 독소 제한 규정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2761-2017)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은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B1, 아플라톡신(Aflatoxin) M1, 보미톡신(Deoxynivalenol), 파툴린(Patulin), 오크라톡신(Ochratoxin) A 및 제랄레논(Zearalenone)의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21년 중국은 식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통제 규범(GB31653-2021)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은 땅콩, 옥수수, 면실, 견과류, 젃소 사료에 적용됨.

6.5. 기타

- 2021년 중국은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에는 기존 국가표준(GB2762-2017)의 “식품 내 카드뮴 한도”에 “영유아용 시리얼 기반 보충 식품(Complementary Food)” 항목을 추가함.
- 중국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포장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제한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29921-2021)을 통해병원균 지표, 병원균 제한, 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예포장식품과 더불어 즉석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제한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31607-2021)도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7 기타 규정

7.1. 시설·상품 등록 규정

-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시행령 248)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 동물용 사료 및 제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해외 식품 생산 및 콜드체인 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에 등록하는 방법은 품목에 따라 1)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2) 수출국주무관청(식품생산 및 위생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이 해당 기업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기업 및 시설 정보는 해관총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7.2. 특수식품 등록 규정

- 중국은 식품안전법 2015에서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식품, 건강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식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특수식품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안전 감독관리사의 감독을 따라야 함.

7.2.1. 영유아 조제분유

- 영유아 조제분유는 관련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6)에 따라 2018년 이후 제조된 영유아 조제분유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하고, 외국산 영유아 조제분유는 중국으로 수출 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함. 공식적으로 등록된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목록은 없지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에서 등록된 영유아 조제분유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특수식품 등록 관련 정보(문서 등)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3개의 식품안전 국가표준⁹⁾을 발표한 이후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과 관련된 공고(No. 10.)를 발표함. 해당 공고는 새로운 국가표준의 시행 전 해당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부분과 등록된 배합비 조정, 등록된 배합비 변경 신청, 제품의 유통 기간 안정성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지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9) 영아 조제분유(GB 10765-2021), 6~12개월 영유아 조제분유(GB 10766-2021), 유아 조제분유(GB 10767-2021)를 의미하고 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2019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6을 개정한 행정조치(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초안을 발표함. 해당 행정조치 개정 사항에는 배합비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완전한 제조 공정을 보유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엄격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그룹 회사와 자회사 간 무료 배합비 이전과 제품 테스트 시간 단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자사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 중국의 관련 법, 규칙, 규정, 국가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영유아 조제분유는 중국으로 수출 전에 중문 라벨을 포장에 부착해야 하고, 최소 판매 포장 용기에 포장 및 통관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이 보장되어야 있어야 함. 또한, 중국 내에서 재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를 벌크 포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라벨 표시 규범 강화에 관한 공고(No. 38.)를 발표함. 해당 공고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링은 진실되고 명확하고 구별하기 쉬워야 하고, 허위나 과장, 오도하는 문자 그림 또는 절대적인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됨. 0~6개월 영아 및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해당 공시에 의거 성분표, 동물성 단백질원, 복합원료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표 5. 영유아 조제분유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23790-2010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우수 생산 규범 (粉状婴幼儿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5-2021	영아 조제분유 (婴儿配方食品)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6-2021	6~12개월 영유아 조제분유 (较大婴儿配方食品)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7-2021	유아 조제분유 (幼儿配方食品)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7.2.2.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특수의학용 조제식품(수입제품 포함,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SMP)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등록을 위한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4)를 따라야 함. 공식적으로 중국 내 등록된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목록은 없으나,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은 2021년 해당 행정조치 개정안(특수의학용 식품 등록관리 조치)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하였고, 개정안에는 임상 검증 기간을 40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어 있음. 또한 현장 샘플 검사 시행과 등록 인증서의 부록으로 제품 기술 요건(시험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하고, 라벨링 및 표시에 대한 요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7.2.3. 보건식품

- 2016년 시행된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¹⁰등록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2)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건식품(수입제품 포함) 등록 및 비안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020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회수 담당 권한 변경(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시장감독관리총국)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함. 영유아 조제분유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과 같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보건식품 목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에서 등록된 특수 보건식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식품 등록에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음. 추가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9년 보건식품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 관련 지침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포장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7.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중국의 GMP는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프레임워크의 4개 기둥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으며, GMP 관련 중국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음.

표 6. GMP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1-2021	식기류 집중 소독 위생규범 (餐(饮)具集中消毒卫生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2-2021	즉석섭취 전단 과일·채소 가공 위생규범 (即食鲜切果蔬加工卫生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3-2021	식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통제 규범 (食品中黄曲霉毒素污染控制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4-2021	외식서비스 통용 위생규범 (餐饮服务通用卫生规范)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31605-2020	식품 콜드체인 물류 위생규범 (食品冷链物流卫生规范)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12693-2010	유제품에 대한 국가 식품 우수제조기준 (乳制品良好生产规范)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23790-2010	영아용 유제품에 대한 국가 식품 우수제조기준 (粉状婴幼儿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10) 보건식품 생산기업이 법정절차, 조건, 요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을 제출하여 보관, 공개, 비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록(신청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심사)'보다 완화된 규정임.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3년 12월 26일	2015년 1월 1일	GB29923-2013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양호생산규범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2014년 12월 24일	2015년 5월 24일	GB31621-2014	식품경영과정 위생규범 (食品经营过程卫生规范)
2013년 5월 24일	2014년 6월 1일	GB14881-2013	식품생산 통용 위생규범 (食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5년 9월 21일	2016년 9월 21일	GB31603-2015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생산위생규범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0-2016	통조림 식품 생산위생규범 (罐头食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1-2016	증류주 및 그 조제주 생산위생규범 (蒸馏酒及其配制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2-2016	맥주 생산위생규범 (啤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4-2016	식초 생산위생규범 (食醋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5-2016	식용 식물유 및 그 조제품 생산위생규범 (食用植物油及其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6-2016	당액 또는 꿀에 절인 과일제품 생산위생규범 (蜜饯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7-2016	떡, 과자, 빵 생산위생규범 (糕点、面包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4-2016	가축과 가금 도살 가공위생규범 (畜禽屠宰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5-2016	음료 생산위생규범 (饮料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6-2016	발효주 및 그 조제주 생산위생규범 (发酵酒及其配制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3122-2016	곡물 가공위생규범 (谷物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7403-2016	캔디, 초콜릿 생산위생규범 (糖果巧克力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7404-2016	팽화식품 생산위생규범 (膨化食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8524-2016	식품 조사 가공위생규범 (食品辐照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0799-2016	육과 육제품 경영 위생규범 (肉和肉制品经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0941-2016	수산제품 생산위생규범 (水产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1710-2016	알 및 알 제품 생산위생규범 (蛋与蛋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2508-2016	원량 저장 운송 위생규범 (原粮储运卫生规范)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31641-2016	항공식품 위생규범 (航空食品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12월 12일	GB8953-2018	간장 생산위생규범 (酱油生产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19304-2018	포장 음용수 생산위생규범 (包装饮用水生产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6-2018	급속냉동식품 생산 및 경영위생규범 (速冻食品生产和经营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7-2018	식품첨가물 생산위생규범 (食品添加剂生产通用卫生规范)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표 7.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한 GMP 국가표준

SPS 통보	국가표준(중국어)	국가표준(영어)
1171	食品加工用菌种制剂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icrobial Food Cultures
1066	熟肉制品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Cooked Meat
880	冷藏乳制品贮运销售卫生规范	Sanitary Specifications for Storage and Marketing of Refrigerated Dairy Products
859	食品用热加工调味料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Thermal Process Flavoring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8 시사점

- 중국 소비자들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멜라닌 분유파동, 가짜계란,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식품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식품 안전 관련 규정, 행정조치, 공고, 국가표준 제도화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¹¹⁾ 예를 들어, 중국은 2022년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또한, 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은 최소 판매 포장에 증문 라벨을 반드시 인쇄하여 표시해야 함.
-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강화는 중국 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수단이지만,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및 기업에는 비관세장벽의 수단이 될 수 있음. 비관

11) 류에리·박원석·오선영·최원목·최성열(2014)의 「한-중 FTA 대비 식·의약분야 제도분석 및 대응 방안」을 참고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세장벽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동일한 비관세조치라 할지라도국가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국은 2021년 기준 중국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액은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15.6%를 차지하고 있음.¹²⁾ 이에 따라 중국의 농식품 안전제도 강화는 중국이 중요한 농식품 수출국가인 한국에게 무역 방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2021년 중국의 농식품 통관거부 전체 사례는 3,191건으로 2020년 2,096건보다 52.2% 증가하였음. 또한, 2021년 중국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사례는 총 96건으로 2020년 3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함. 중국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유형은 라벨링/포장 23건, 성분 부적합 30건, 위생 21건, 서류미비 17건, 기타 5건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과 관련되어 있음.¹³⁾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성분 부적합, 위생에 관한 통관거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개정, 국가표준 개발 등 식품 안전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입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시는 2022년부터 ‘베이징 진입 콜드체인 식품 유통 방역체계’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 산둥성은 2022년부터 수입식품 PCR 검사를 냉장·냉동제품에서 상온 제품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국의 새로운 수입 조치는 특히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신선 제품 수출국가 및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제도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최소품질기준(minimum Quality standards, MQS) 이론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식품 안전 제도에 부합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농식품 안전 제도 강화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최소 품질기준 이론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식품 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함.
- 한국 대사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 정부도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 제도 및 변경 사항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농식품 관련 제도 강화와 새로운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제도(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

1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21년 한국의 농축산물 교역 자료를 활용한 결과, 중국(2위)은 일본(1위)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의 「2021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을 참고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는 한국 기업은 정부 차원의 도움 외에도 중국 내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내 대리인 또는 업체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즉, 한국 정부와 한국 수출기업 모두 중국 내 농식품 안전제도 강화가 농식품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참고문헌

- 류예리, 박원석, 오선영, 최원목, 최성열. 2014. 한-중 FTA 대비 식·의약품분야 제도분석 및 대응 방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재영. 2018.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4호.
- 전보희, 조의윤. 2021.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1년 38호.
- 한국무역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2019 주요국 라벨링제도 보고서 II 권(중국,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2021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황운중. 2020. 비관세장벽 수출효과-한국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Vol 45, No 1.
- 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USDA. <https://www.fas.usda.gov/data/china-food-and-agricultural-import-regulations-and-standards-country-report> (검색일: 2022. 8. 2.).

<참고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3. 20.
-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중국(<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ListPage.do?searchNtnlCls=&searchNtnl=CN>). 검색일: 2022. 9. 13.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 검색일: 2022. 9. 20.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유 은 영*

“포르투갈 정부는 농촌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크리에이투어(CREATOUR) 사업을 진행. 농촌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창의적인 경험과 지역 문화에 몰두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관광’ 개발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도모”

1 포르투갈의 창조관광을 활용한 농촌 개발 시도

1.1. 포르투갈의 크리에이투어(CREATOUR) 사업

- 포르투갈에서는 농촌 개발의 일환으로 창조관광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크리에이투어(CREATOUR) 사업을 실시함.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포르투갈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농촌 창조관광(creative tourism) 육성 사업으로, 학제간 연구와 현장에서의 관광 사업화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학문과 현장의 적극적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포르투갈 농촌의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창조관광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016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됨. 포르투갈의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인 노르트(Norte), 센트루(Centro), 알렌테주(Alentejo), 알가르브(Algarve) 등 4개 지역에서 40개의 창조관광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40개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사업은 포르투갈 국고로 운영되는 포르투갈 과학기술기금(Portuguese Found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고, 12개의 문화 및 관광 관련 기관과 대학교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에 참여함.

1.2. 창조관광의 의미

- 본 사업에선 창조관광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방문자 간의 교류와 개인의 자기 표현을 증진하는 창조적인 관광 활동”으로 정의함. 창조관광의 핵심 4가지 요소로 ‘활동적인 참여, 창조적인 자기표현, 배움, 지역사회의 개입’을 꼽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wordtime84@krei.re.kr)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창조관광은 지속가능성을 가진 소규모 관광으로 볼 수 있음. 방문객에게 단순히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배우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창조관광이 다른 경험 중심의 관광 상품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보다 ‘창조적인 과정’에 주안점을 준다는 것임. 방문객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휴식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활동을 하게 됨. 이러한 활동은 부가적으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으로 이어짐.
- 창조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상품(예를 들어, 문화적 관광, 자연 관광, 산업관광 등)을 보완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임. 즉, 기존의 관광 상품에 창조관광을 융합하여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음. 최근 들어 여행객들이 여행의 동기로 자기만족, 새로운 경험, 정서적 함양, 배우고 등을 꼽고 있는데, 창조관광의 특성들이 이러한 여행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음.

1.2.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개발 비전

- 크리에이티브 사업은 궁극적으로 농촌에서 문화, 관광, 지역개발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함. 창조관광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농촌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이 농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더 나아가 창조관광 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인 활동, 상상력의 증진,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 등은 관광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인 소규모 관광, 사람 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관광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앞으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조관광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필요가 있음.
- 크리에이티브 사업은 포르투갈의 많은 농촌 마을들이 다양한 방식의 창조관광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시켜 교류를 통해 창조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조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2 크리에이투어 사업 사례

-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포르투갈 농촌지역에서 40개의 창조관광 시범 사업이 진행됨.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음. 40개의 시범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LRB는 기술기업과 3개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진행된 창조관광 사업임. 3개 지자체에서 자연 또는 전통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조관광 주제를 선정함. 해당 주제와 연관된 창조적인 경험들과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하였음. 여건상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어려운 체험들을 주로 증강현실로 대체함. 예를 들어, 노르트(Norte)의 바로소(Barroso)지역에선 울 생산을 주제로 하여 실제 체험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함. 유목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양 사육 등의 경험을 증강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그림 1).
- ADRAT는 노르트(Norte)의 바로(Barro)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연합체로, 지역의 명물인 검은 도자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그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검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함. 아이들에겐 전통적으로 도자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 성인 대상으로는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그림 1. 바로소 지역의 울 생산 체험 |



자료: creatour.pt(2020)

| 그림 2. ADERE-PG의 오감체험 프로젝트 |



자료: creatour.pt(2020)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ADERE-PG는 포르투갈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노르트(Norte)의 페네다 제레(Peneda-Gerês) 국립 공원에 속해 있는 5개 지자체의 지역개발 연합체임. 이들은 창조관광으로 창조적인 오감체험 프로젝트는 진행함. 오감과 5개 지역의 전통을 연결하여, 관람객들이 5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카스트로 라보레로(Castro Laboreiro) 지역에선 방목지를 바꿔가면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목축의 형태는 이목을 체험하면서 축각을 느낄 수 있고, 라브라다스(Lavradas) 지역에선 민속음악을 배우며 청각을 경험함. 사오 조지(São Jorge) 지역에선 특산품인 꿀을 맛보며 미각을 즐기고, 코비드(Covide) 지역에선 전통적인 천연 식품저장고를 체험하며 후각을 즐길 수 있음. 카브릴(Cabril) 지역에선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을 감상하며 시각을 즐길 수 있음(그림 2).
- 노바 트라디시오(Nova Tradição)는 알렌테주(Alentejo)의 에보라(Évora) 지역의 전통적인 직물 산업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친환경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함. 지역의 전통 직물 산업에 대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제공하고, 천연 염색, 식물로 무늬 찍기 등으로 직접 옷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함(그림 3).
- CECHAP는 알렌테주(Alentejo)의 에보라(Évora) 지역의 자원인 대리석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창조관광 프로젝트로 지역의 대리석 조각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관람객들에게 대리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대리석의 다양한 질감, 색깔, 무게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석을 다루는 다양한 기구들을 보여줌. 방문객들은 버려진 대리석들을 재활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리석 판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함(그림 4).

| 그림 3. 에보라 지역의 옷 만들기체험 프로그램 |



자료: creatour.pt(2020)

| 그림 4. 에보라 지역의 대리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



자료: creatour.pt(2020)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에스티발(Estival)은 센트루(Centro)의 세라 다 에스트렐라(Serra da Estrela)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예술 축제로, 지역 내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농장에서 일주일 간 진행된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예술가, 자원봉사자, 관람객들은 다양한 창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함. 연극, 스탠딩 코미디, 노래, 춤, 그래픽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매일 저녁엔 각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공연 행사가 이루어짐. 또한 축제 기간 중 하룻밤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행사를 진행함.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지역 음식을 나누어 먹고 공연을 하거나 댄스파티 등을 진행함(그림 5).

| 그림 5. 센트루 지역의 에스티발 축제 |



자료: creatour.pt(2020)

| 그림 6. 창의적인 마을 지도 만들기 체험 |



자료: creatour.pt(2020)

- 바로카(Barroca)는 알가르브(Algarve)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광사업체로, 알가르브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창조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전통음식과 지역 특유의 식재료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의 특징들이 디자인, 사진 등과 같은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관람객들이 알가르브 지역의 전통 식재료인 캐럽(carob-초코렛 향이 나는 열매)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지고 전통 음식을 만드는 작은 마을들을 차례대로 방문함. 이 과정 속에서 관람객들은 방문한 마을들의 지도를 제작함. 자신들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도를 제작함(그림 6).

| 그림 7. 프로젝트티브터의 전통 공예 프로그램 |



자료: creatour.pt(2020)

- 프로젝트티브터(Proactivetur)는 알가르브(Algarve) 지역의 관광사업체로 지역의 전통 수공예 방식을 활용하여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지역의 전통 공예 기술 보유자와 협업하여 방문객들에게 현대적인 디자인 상품을 전통적인 공예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2일에 걸친 프로그램을 진행함(그림 7).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3 농촌 지역에서의 창조관광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

- 포르투갈 정부는 약 5년 간의 크리에이티브 투어 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창조관광을 증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요소를 도출함.
- 첫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포르투갈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농촌 창조관광 사업자들과 숙박업 및 요식업 등의 관광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요함.
 - 서로 지식과 혁신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지역의 차원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관련 기업이나 인력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 예술가, 비영리기업 등 간의 협업으로 패키지 창조관광 상품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음.
- 둘째,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재 역할이 필요함. 창조관광이라는 틈새시장과 관련되어있는 각 분야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문화산업, 창조산업, 관광업, 지역개발 분야 등은 창조관광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밀접하게 교류하고 협업해야 함. 이들을 위한 중재, 지식 교류,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창조관광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여 각 분야가 맡아야 할 역할을 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또한 이들이 창조관광 개발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 탐색, 투자 유치,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은 관련 정부 조직과 사업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야 함. 창조관광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동인이 되기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함.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함.
- 셋째, 인적자원의 발굴이 필요함. 창조관광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능력있고 열정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해야 하며, 창조관광 분야에서 일하는 사업가, 직원, 중간지원조직, 문화 관련 정부 조직, 예술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역량있는 인적자원들은 창조관광 시장의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창조관광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함. 또한 창조관광을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의 니즈를 고려하고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음.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넷째,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개발이 필요함. 창조관광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소비자 분석을 통해 시장세분화를 시도하여 각 창조관광 상품의 성격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함. 또한 방문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 또는 축제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창조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방문객들을 모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등의 디지털 마케팅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다섯째, 농촌 지역에서의 창조관광 증진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지역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창조관광 상품에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창조관광이 지역의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 포르투갈 정부는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조관광’ 산업을 증진하고자 함. 단순히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광범위한 농촌관광에서 벗어나 ‘창조관광’이라는 틈새시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농촌 지역이 가진 다채로운 문화적 자원은 창조관광을 증진하기에 적합함.
 - 포르투갈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통해 40개의 창조관광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에 창조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할 예정임.
- 한국에서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서 창의적인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경북 문경시에서 한옥카페와 테마있는 농촌 마을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리플레이스, 강원 평창군에서 지역 내의 여러 경영체가 연합하여 지역 내의 경영체와 문화를 소개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와우미탄 등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포르투갈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창조관광’은 농촌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농촌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음.



포르투갈의 창조관광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국내에서 농촌 지역이 창조관광이라는 틈새시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것이 지역 자원의 보존 및 재창조와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창조관광이 한국의 농촌에서도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문화산업, 농촌관광업, 지역개발 분야 등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 또한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조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참고문헌

- Creatour.pt. 2020. 「Creative Tourism Development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Creatour.pt. 2020. 「Pilot: CREATOUR co-researchers」.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¹⁾

1.1 개요

■ **[시장에서 위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제 곡물과 유지종자의 중요 생산·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및 비료 등 투입재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지난 5년간 평균세계밀 생산량의 10%와 3%, 세계 밀 수출의 20%와 10%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러시아는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2020년 세계 비료수출의 15% 이상을 차지

■ **[우크라이나의 영향]**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적기 수확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항구 폐쇄와 유지종자 분쇄 작업 난항으로 인해 관련 품목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

※ FAO 및 USDA에 따르면, 생산은 2021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의 직접 손실은 43억 달러, 간접 손실은 233억 달러로 추산

■ **[러시아의 영향]**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중 식량 생산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있어 농업 생산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기업의 참여를 감소시키며, 이는 간접적으로 농약, 종자, 수의학 의약품 및 농업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농업 연관 산업을 제한 가능

■ **[식량안보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감소,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은 국제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

※ (시나리오 분석) 우크라이나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러시아 밀 수출이 50% 감소 시 국제 밀 가격 34% 상승

■ **[정책 권고]**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물류 재건 지원 집중, △농

1)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2022.8.22."(출처: Agricultural markets: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7.6. 발간)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산물 및 투입재 무역을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식량 접근성을 높이며, △식량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 제공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필요

-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생활 개선 등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고려할 필요

1.2 국제 농산물 및 투입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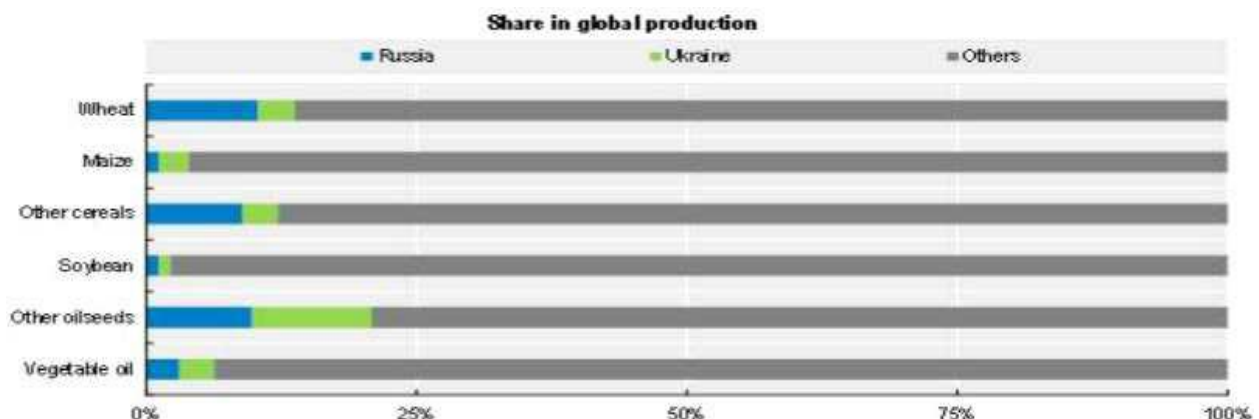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제 곡물과 유지종자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출국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지난 5년간 평균 세계 밀 생산량의 10%와 3%, 세계 밀 수출의 20%와 10%를 차지하는 등 양국은 세계 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5% 수준을 차지,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보리(사료용)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각각 3위, 4위 수출국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 생산국이며, 양국은 세계 해바라기씨유 수출의 각각 50%와 25%를 차지하고, 미주지역 제외 시 가장 큰 대두 수출국이며, 가장 큰 non-GMO 대두 수출국

■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및 비료 등 투입재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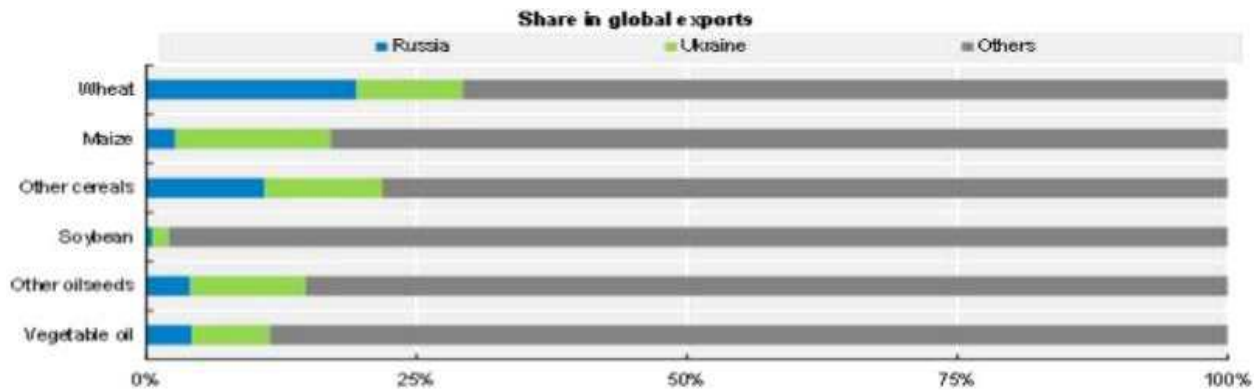
-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세계 수출의 20%, 2019 기준), 2위의 석유 수출국(11%), 3위의 석탄 수출국(15%)
- 또한,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질소(N) 비료, 2위의 칼륨(K) 비료, 3위의 인(P) 비료의 수출국으로 2020년 국제 비료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

| 주요 작물의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점유율 |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1.3 우크라이나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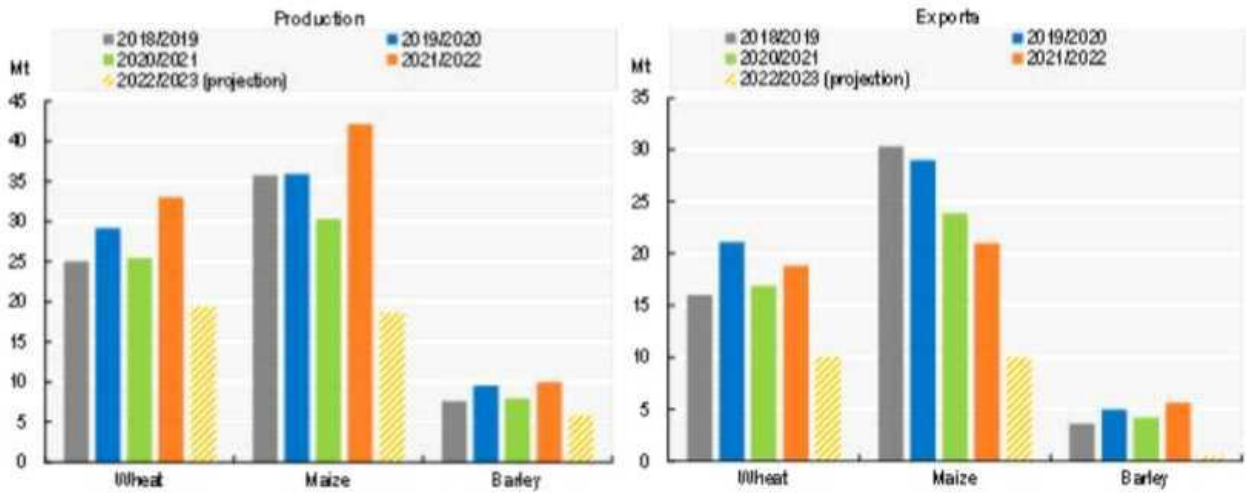
- 러-우 전쟁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 및 수출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
 - 전쟁으로 인해 적기 수확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항구 폐쇄와 유지종자 분쇄 작업 난항으로 인해 관련 품목 수출에 악영향
- 현재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가능한 계속해서 농작물과 축산물을 생산 중
 - 2022년 5월 현재 2022-23년도 겨울 작물의 생산 전망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2022년 6월 수확 전 시비 및 관리 작업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2022년 봄 작물의 파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나, 주요 봄작물(해바라기씨, 옥수수, 봄보리)의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 FAO 및 USDA에 따르면, 생산은 2021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지만 여전히 국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의 병해충 및 동물 질병,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통제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에서 질병 확산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
-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90% 이상은 흑해 등 해상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접근 난이하고, 일부 저장 및 가공 시설이 손상되어 농산물 수출이 더욱 지연되고 제한 중
 - * 도로, 철도 및 하천 항구 등 기타 채널은 해상 항구에 비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에 현재 수출은 정상 대비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2022년 6월 기준 생산량 감소, 생산비 상승, 물류 차질, 수출 품목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업의 간접 손실은 233억 달러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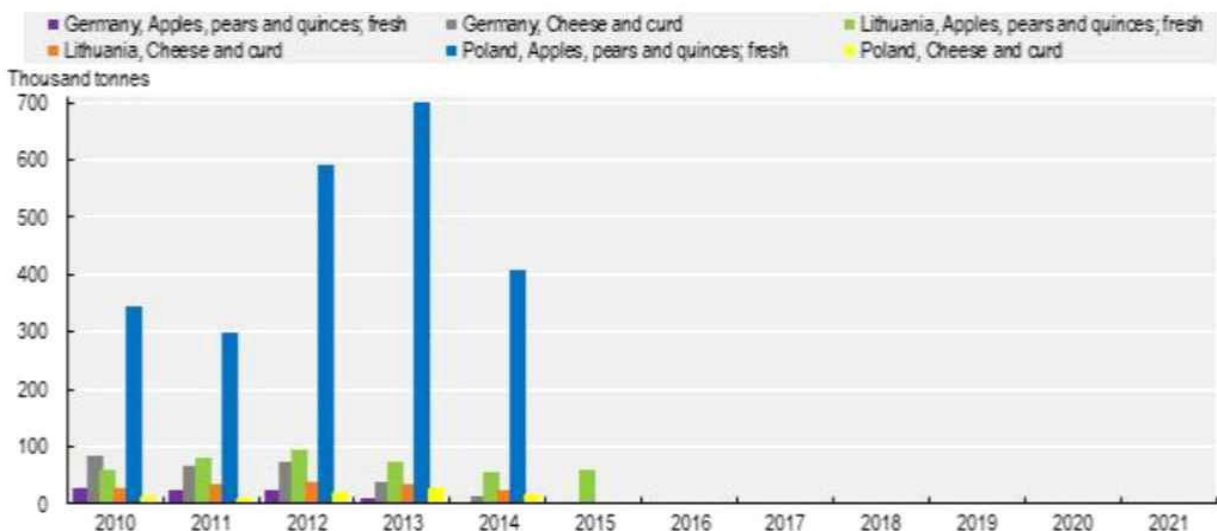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1.4 러시아 농산물 무역의 영향

- 현재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중 식량 생산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있어 러시아의 농업 생산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 EU, 북미, 기타 국가들은 러시아산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수입 금지 중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밀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증가

|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 현황(2010-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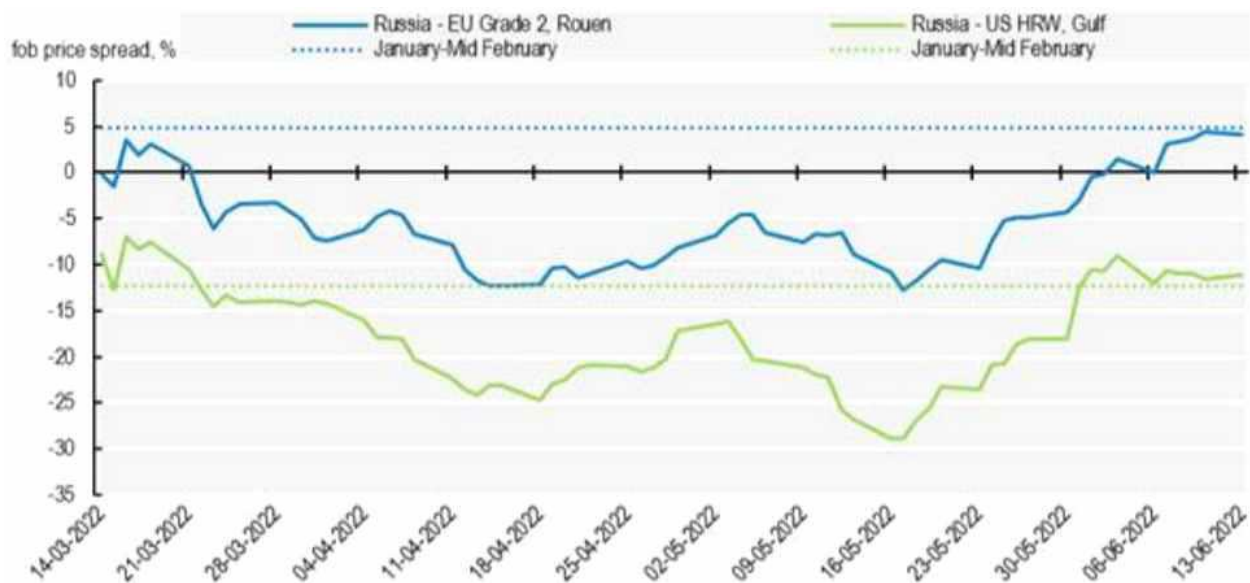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지금까지 농업 및 비료 무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참여 감소
 - 재정 제재 등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러시아 밀은 다른 원산지에 비해 가격이 하락*
 - ※ 러시아와 미국 밀, 러시아와 EU 밀의 수출 가격 격차는 2022년 5월 중순에 각각 -30%와 -12%로 정점
 -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손실은 러시아 생산자의 소득을 저하시켜 미래의 농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또한, 농약, 종자, 수의학 의약품 및 농업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농업 관련 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농업의 미래 생산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 러시아 밀과 타원산지 밀의 국제 가격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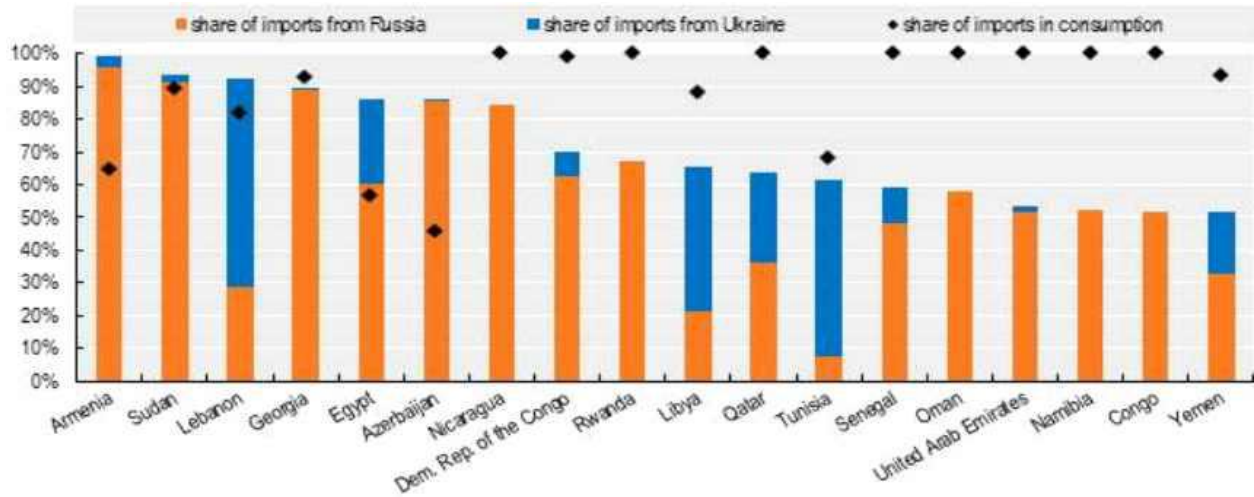
1.5 국제 식량안보

- 우크라이나인들은 국내에서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
 - 2022년 5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800만 명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 63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으며, 190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귀국, 특히 국내 실항민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내 공급 채널 유지가 어려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
- 저소득 식량 부족 국가군(LIFDC)에 속하는 다수의 식량 수입국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식량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동 지역의 분쟁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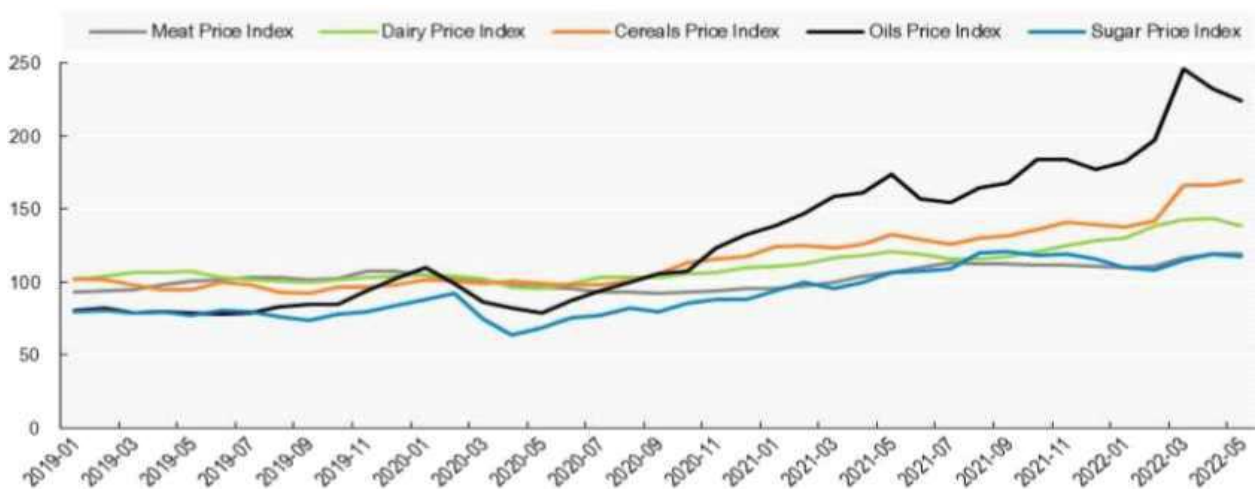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주요국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의존도(2018-2020 평균)



- 2022년 6월 현재, 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품목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상승은 지속
 - 무역 흐름의 조정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 중이며, 2022년 3월 FAO 식품 가격 지수(FFPI)는 159.7포인트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FFPI는 2022년 4월과 5월에 약간 하락했지만, 전년도 동월보다 여전히 30% 높음.
 -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품에 지출하는 LIFDC의 취약계층은 특히 이러한 가격 인상 위협에 노출

FAO 식품가격지수 동향



- Aglink-Cosimo 모델을 사용하여 2022-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및 수출 수준에 따른 영향을 분석, 시나리오별 국제 밀 가격 변화를 전망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러시아의 수출 변동 상황 없이, 우크라이나의 잉여 농산물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세계 밀 가격이 19% 상승
- 러시아 수출도 평소보다 50% 낮고, 우크라이나의 수출 여력이 없을 경우 밀 가격은 34% 상승

|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밀 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 밀 가격 상대 변화 |

		Restriction of wheat exports by Russia			
		0%	-10%	-25%	-50%
Reduction of Ukraine exports	0%	0	2%	5%	11%
	-25%	4%	6%	10%	16%
	-50%	9%	11%	15%	21%
	-100%	19%	22%	26%	34%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밀 등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양 결핍 인구의 추가 증가로 이어질 우려 존재

1.6 정책 권고

1.6.1 국제 무역 측면: 단기

-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 우크라이나 내 기반 시설도 전쟁 피해로부터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이는 전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
 - 농산물의 주요 교역 채널인 흑해 항구(Odessa, Mykolaiv, Mariupol 및 Kherson)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상 등)
 - △우크라이나 육로 국경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도로 및 철도 연결망 개선, △루마니아, 폴란드 등 다른 국가의 철도 및 도로를 활용한 운송 활성화 등 대체 경로 개발 필요
- 일부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 제한을 신속히 해제, 수입장벽 낮추고, 무역 절차의 단순화 등 농산물 및 투입재 무역을 개방적으로 유지
 - 수출 금지 및 기타 무역 제한이 일시적 국내 가격 인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의 가격 급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해당 국가의 신뢰를 약화
- 농산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시장 정보 시스템(AMIS)과 같은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1.6.2 공급 측면: 장기

-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할 필요
 - 토지, 사회기반 시설 및 장비 피해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피해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미화 43억 달러로 추산
 - OECD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논의가 이미 진행 중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다른 수출 국가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을 지속적 증가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및 기타 동물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추가적 식량 불안정 발생 요소에 대비

1.6.3 수요 측면: 장기

- 비식품 농산물 수요를 임시적으로 조정하여 식품으로 소비되는 농산물을 확보
 - 특히,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빠르게 조정 가능하나, 화석 연료 사용 증가, 식품으로서의 품질 문제 등 고려 사항이 상존
 -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낮추고, 농업의 환경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현재 식량 손실 및 폐기물 양은 연간 약 12억 6천만 명을 부양할 것으로 추정
-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요 조정 가능
 - ※ 1인당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줄이면 사료 수요 감소
 - 식생활의 개선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¹⁾

-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Food System Transformation framework)는 식품 생산(food production), 가공(processing), 수집/유통(aggregation/distribution), 시장/소비자(markets/consumers)의 식품 시스템 전 과정에 지원하고자 함.

1.1 식품 생산에 대한 지원

- **[새로운 유기농 전환 계획에 최대 3억 달러]** 유기농은 생산자에게 시장 프리미엄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금액이 식품 생산자에게 분배되도록 함. 또한 유기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유기농 전환 계획은 기술 지원, 농업인간 멘토링, 추가적인 작물 보험 지원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목표 시장 공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됨.
- **[도시 농업에 7,500만 달러 지원]** 도시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기여함. 농무부는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도시농업에 2,000만 달러를, 새로운 도시 농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함. 또한 4,000만 달러를 투입해 도시 농업인을 훈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과의 협약을 맺고, 5백만 달러는 People's Garden initiative에 투입하여 지역 내 생산을 지원함.

1.2 식품 가공에 대한 지원

- **[식품공급사슬 대출 보장 프로그램]** 식품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냉동창고, 냉장트럭, 가공 시설 등 공급이 적으나 필수적인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구매하는 데 대출을 지원함.
- **[육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 가공시설 확장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육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함.

1)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Framework for Shoring Up the Food Supply Chain and Transforming the Food System to Be Fairer, More Competitive, More Resilient"(2022.6.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숙련 노동자 공급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숙련 노동자들은 육가공에 중요하나, 현재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위험관리 교육 등을 실시함.
- **[특용작물프로그램의 식품 안전 증명을 위한 2억 달러 투입]** 특용작물에 대한 법적제한과 시장에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러한 식품 안전 기준은 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식품 공급 사슬 인프라 지원을 위한 6억 달러 투입]**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냉동 창고, 냉장 트럭, 가공 시설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식품의 가공, 유통, 저장, 수집 능력을 개선하고자 함.

1.3 식품 수집 및 유통에 대한 지원

- **[지역 식품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센터는 중소 농가 혹은 식품업자들에게 협업, 기술지원 등을 제공함.
- **[Farm-to-School을 통한 상품 구매 지원]**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Farm-to-School을 통해 로컬푸드의 공공 조달과 사용을 증가시킬 것임.
- **[식품 폐기물 방지 및 감소를 위해 9,000만 달러 투자]** 2019년에 미국에서는 4,080억 달러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미국 식량 공급의 1/3 이상임. 식품 폐기물은 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폐기물 감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함.

1.4 시장 및 소비자 지원

- **[건강한 식품 재정 지원 펀드에 1억 5,500만 달러 확대]** 식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에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며, 이는 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가 될 것임.
- **[고령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고령자들이 채소, 과일 등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달러를 지원함.
- 이외에도 SNAP의 디지털 결제(EBT) 등을 위한 기술 개발, 건강한 식품 인센티브 기금(Healthy Food Incentive Fund)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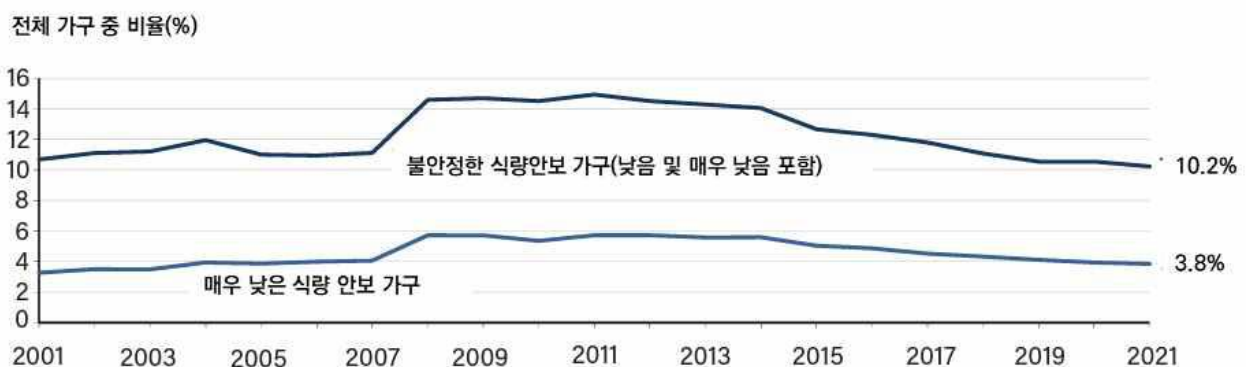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미국

2 2021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²⁾

- 미국 내 가구들의 식량안보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미국 내 가구들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가구의 식량안보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 농무부는 ‘식품 및 영양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식단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과 관련된 교육을 포함함.
-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에는 89.8%의 미국 가구가 안정된 식량안보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10.2%(1,350만 가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
 - 식량안보 상태가 불안정한 가구 수는 2019년에 1,370만 가구, 2020년에 1,380만 가구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
 - 식량안보 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의 수 또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음.

| 낮은 식량안보 가구의 비율 변화(2001-2021) |



- 여성 단독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가 2020년과 2021년 사이 더 큰 식량안보 위협을 받았으며, 청소년 혹은 아동이 있는 가구는 식량안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2)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2021”(2022.9.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식량안보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이 있음.
 - 식량안보 수준이 낮은 집단 중에서 2020년과 2021년 사이 식량안보 위협을 더 많이 받은 가구는 아이가 없는 가구들이며, 특히 여성 혼자 혹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들이 위협을 많이 받음.
 - 반면, 식량안보 수준이 낮은 집단 중 동기간에 식량안보 수준이 향상된 집단으로는 18세 미만 청소년 혹은 6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 등임.
 -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낮은 식량안보로 위협받는 가구의 비율은 2020년 7.6%에서 2021년 6.2%로 감소함. 이는 2019년의 6.5%와 비슷한 수준임.
 -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가구의 식량안보 수준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 성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들은 매우 낮은 식량안보에 처해있는 비율이 0.7%에 불과함.
-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집단은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가구보다 식품 구매에 더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량안보 불안정 가구 중 약 56%가 대표적인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한 개 이상 참여하였다고 응답함.
 - ※ 3대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 ①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②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③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식량안보가 안정적인 중위 가구는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식량안보 불안정 가구보다 식품 구매에 16%를 더 지출하고 있음.
 - 이는 SNAP을 포함한 지출 금액으로, 식량안보가 낮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식량안보가 안정적인 평균적인 가구의 식품 지출 수준에 미달함을 의미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유럽



1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¹⁾

- 2022년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1,0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2023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015년 이후 식량 곡물 생산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BEF)에 따르면, 농업은 인도 인구의 약 58%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원천임.
 - 2022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인도의 2021년 세계 기아 지수는 116 개국 중 10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약 35.5%가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음.
- 인도는 2030년 중반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자원 수요가 상품 가격을 주도할 것임.
 - 인도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며, 에너지, 비료 및 해바라기씨유와 같은 농업 투입물의 주요 수입국임.
 - 인도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인도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수입이 국내 시장 공급의 86%를 차지함.
- 인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 세계 기후 위험지수에서 7위를 차지함.

1)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India and food (in)security"(2022.7.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석탄 사용에 대한 '단계적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수, 기온 상승, 폭염 및 강우량 감소는 농업 부문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도와 EU는 2004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이후 EU의 양자 간 개발 협력 대상은 아님. 그러나 2021년 채택된 EU의 근린국가 지원, 개발원조, 국제협력(NDICI-GE)에 따라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0년 7월에 개최된 제15차 EU-인도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에너지에 관한 협력을 다루는 'EU-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2025년 로드맵'을 승인함.
- 2021년 5월에는 녹색성장(민간 항공의 탈탄소화 포함), 무역과 기술을 통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 영양 및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2022년 6월에는 공식적으로 균형 있고 포괄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2013년 이후 동결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EU와 인도는 2007년 포괄적무역투자협정(BTIA) 협상을 시작했으나 2013년에 결렬
-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도의 교역국이며, 인도는 EU의 10번째 교역국임.
 - 2021년 EU는 인도 무역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EU 무역의 2.1%를 차지
- 2022년 4월 텔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인도 총리는 EU-인도 간 무역 및 기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1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¹⁾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8월 25일,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 결정을 위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법에 따라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 ※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부장관·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2009년 법률 제 52호)에 기초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 국가 달성 목표,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임. 기본계획은 ‘최소 5년 단위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현행 기본계획은 2016년 9월 16일에 확정되고 5년이지만, 2021년 12월부터 7개 관련 부처 차관급(부장관·정무관)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지속 발전하는 경제사회 및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명시된 생산력 향상과 지속가능성 양립을 추진하여, 지역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향후 기본계획을 개정해 있어 농산어촌뿐만이 아닌 도시지역도 포함한 지역 주체 바이오매스 종합적인 이용 추진, 제품·에너지 산업 시장 중 일정 점유율을 국산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1.1 기본방침

- 농림어업인 등 바이오매스 공급자, 제조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연계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수급에 따른 적절한 규모와 바이오매스 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지역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용 추진

1) 일본 농림수산성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計画の改定について”(2022.8.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바이오매스 활용이 탈탄소 사회 형성에 공헌하는 등 소비자 이해 양성에 의한 수요구조 변화 촉진
- 생물다양성 확보 등 환경보전을 고려하면서 바이오매스 생산과 이용 속도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 추진

1.2 국가의 달성 목표

-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 도시지역도 포함한 지역 주체적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혁신에 의한 신 산업 창출 및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30년도 목표를 설정하였음.
 -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적인 사회 실현) 바이오매스 연간 산출량의 약 80% 이용
 - (농산어촌 활성화, 지역 주체적 대응 추진) 모든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 책정, 모든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바이오매스 관련 계획 활용
 -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 제품·에너지산업에서 국산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이 시장 점유율 2배(1% → 2%)로 신장

1.3 필요한 정책

- 바이오매스 활용에 필요한 기반 정비를 추진함.
 - ‘바이오매스 산업 도시’ 등을 통해, 원료 생산부터 수집·운반, 제조·이용까지 경제성이 확보된 일괄 시스템 구축
-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매스 제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창출 등을 추진함.
 - 바이오매스 공급 기반이 되는 식량·농림수산업 지속성 확보, 바이오매스 특성에 맞춘 고도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이해 양성 추진
- 바이오매스 제품 등 이용을 촉진함.
 - 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매스 제품 이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계적 이용 추진

1.4 기술 연구개발

-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바이오매스 고도 이용을 통한 바이오가스부터 메탄올, 수소 등을 제조하는 기술 및 혼합 이용 등 에너지 이용 기술 확대가 필요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항공 분야에서도 탈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도입을 위한 대응을 추진함.
-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회수·유효 이용(CCU : 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및 바이오탄에 의한 탄소 저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
- 일본 고유의 나무인 삼나무의 리그닌에서 개질 리그닌 제조 및 목질 바이오매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제조 등 바이오매스 원료 이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환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미도리 식량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2)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8월 31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본부 제9회 회의에서 환경부담 저감에 이바지하는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항을 논의 하였음.
-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대응을 지원하는 교부금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원·에너지 조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각 단계별 대응과 혁신을 추진함.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정책 추진 사항

<미도리 전략 실현 기술 개발·실증 사업(80억 엔)>

- 화학 농약·화학 비료 사용량 저감과 높은 생산성을 양립하는 신제품·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 농업 기술 및 펠릿 퇴비 활용 기술 실증 등 추진

<미도리 전략 추진 종합 대책(30억 엔)>

- 환경부하 저감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모델 지구 창출(교부금)
 - 토양진단 및 추비 등 국내 자원 활용을 통한 화학비료 저감, 병충해 종합 방제, 재배력 재검토 등 재배기술과 첨단 기술 등을 도입한 친환경 재배체계로 전환, 소비자 이해 양성을 위한 대응 추진
 - 유기농업 단지화 및 학교 급식 이용, 판로 확대
 - 바이오매스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대책
 - 환경부담 저감과 수익성 향상을 양립한 시설원에 산지 육성

2) 일본 농림수산성 “環境負荷低減に資する「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の実現に向けた政策の推進”(2022.8.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친환경 재배체계 보급, 유기농업 추진(민간단체 등)
 - 기술 확립 보급, 생분해성 멀칭 도입 촉진, 유기농업 기술지도 강화

〈농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교부금(28억 엔) 지원
- 강한 농업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164억 엔), 농지 이용 효율화 등 지원교부금(25억 포함)
 - 화학 농약 및 화학비료 저감, 탄소중립 등 추진에 필요한 기계, 시설 정비
- 농업 지원 서비스사업 육성 대책(3억 엔 내수)
- 환경부담경감형 지속적 생산지원사업(71억 엔), 축산 생산력·생산 체계 강화대책사업(15억 엔 포함)
 - 낙농가 및 육용우 농가가 이행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의 대응, 논을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 등 대응 지원
- 축산 고품질 퇴비 생산 유통 촉진 지원사업(1억 엔)
 - 고품질퇴비 생산 및 광역 유통 등 추진을 위한 이해 양성 및 생산기술 보급 등

〈혁신적인 기술·생산 체계 연구개발 추진〉

- 지식 축적과 활용의 장애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53억 엔)
 -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 등을 축적하여 산학관 연계 연구 지원
- 문샷형 농림수산 연구개발사업(22억 엔)
 -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시행
- 미도리 전략 기반 농업기술의 아시아 문순 지역 응용 촉진 사업(1억 엔)
 - 일본의 유망 기술을 아시아 문순 지역에서 응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실시

〈식품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으로 전환 촉진 사업(3억 엔)
- 신사업 창출·식품 산업 과제 해결 조사·실증 등 사업(2억 엔)
 - 지속 가능한 식품 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조사, 실증 실시
- 식품 등 유통 지속화 모델 종합 대응 사업(3억 엔)
 - 디지털화·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급망·모델 구축 지원 등
- 식품 손실 감소·플라스틱 자원 순환 추진(2억 엔)

〈관계자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

- 식품 공급망 환경 배려 가시화 추진 사업(6억 엔 포함)
- 닛폰푸드시프트종합추진사업(2억 엔)
 - 국민의 이해 양성을 위한 정보 안내
-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1억 엔 포함, 36억 엔 포함)
- 자연계 신용 창출 추진 사업(6억 엔 포함)
 - 자연 유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형성 추진

〈임업·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임업·목재 산업 그린 성장 종합 대응 등(155억 엔, 32억 엔 포함)
 - 엘리트 트리 등 묘목 안정 공급 등 추진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간벌·재조림 추진 및 목재 가공 유통시설 정비
- 국민 참여 산림 조성 및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 사업(100억 엔), 양식업 성장산업화 추진 사업(4억 엔)
 - 홍어·탈탄소에 대응한 다목적 어선 등 도입 실증 지원
 - 양식용 먹이, 종묘 등 어장에 관한 기술 개발·조사 지원
- 어업 노동 안전 확보·혁신적 기술 도입 지원사업(1억 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정비〉

-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 수리시설 에너지 절약 등 추진
- 산림 흡수량 확보·강화 및 국도 강화에 이바지하는 산림 정비·치산 대응 추진
- 거점항구의 에너지 절약 대책 및 해초 서식지·갯벌 보전·창조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2023년 세제 개정 요구³⁾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3년도 세제 개정 요구를 정리하였음.
- 국가에서 지급한 교부금을 설비투자 등에 적립하였을 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감하는 ‘농업경영 기반 강화 준비금제도(이하 준비금제도)’ 연장을 중심으로 농림 어업용 A 중유 판매가격 억제,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세금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사항에 대한 실현 여부는 당정 조율 후 연말에 결정됨.
- 준비금제도는 농가나 법인이 논 활용 직접지급 교부금 등을 농지, 농기계 구매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필요경비나 손실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가 2022년도 말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 2년 연장을 요구함.
- 농림어업용 A 중유에 대한 석유석탄세 면세·환급 조치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을 요구함.
 - 수입 A 중유의 경우 JA 전농 등 수입업자가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포함한 석유석탄세 1kl 당 2,800엔을 면제받아 그만큼 농가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임.
 - 국산 A 중유 또한 동일하게 제조업체에 대한 환급이 있어 판매가격에 반영됨. 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설원예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일본농업신문 “準備金制度延長が柱 農水省 ‘23年度税制改正要望 A重油負担減も”(2022.9.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주요 사항에는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의 '농용지 이용 집적 등 촉진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농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구조와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인정받은 식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시켜 각각 2년 연장을 요구함.
- JA 등이 선과장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특례는 2년, 육용우 매각에 관한 과세 특례 조치는 3년 연장을 요구함.

2023년도 세제 개정 요구 주요 내용

-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
 -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을 농지·농기계 구입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세금부담 경감 → 2년 연장
- 농림어업용 A 중유의 석유석탄세 면세·환급
 - 농업에 사용하는 A 중유의 석유석탄세를 면세·환급하여, 농가에 판매가격에 반영 → 3년 연장
-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부담 경감
 - 농지은행 계획을 기반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부담을 경감 → 2년 연장
- JA 등이 취득한 공공이용시설에 관한 특례
 -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등의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의 세금 부담 경감 → 2년 연장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산물 탈탄소 가시화⁴⁾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산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간단 산정 시트(시험판)'을 공개함.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 목표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 대응을 가시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자금 순환 및 지속 가능한 소비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림수산성에서는 2020년부터 '식품 공급망의 탈탄소화 실천과 가시화 방향 검토회(이하 탈탄소 검토회)'를 개최하여,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산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간단 산정 시트(이하 온실가스 시트)'를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온실가스시트 시험판을 관심 있는 생산자 및 지방자치체, 민간기업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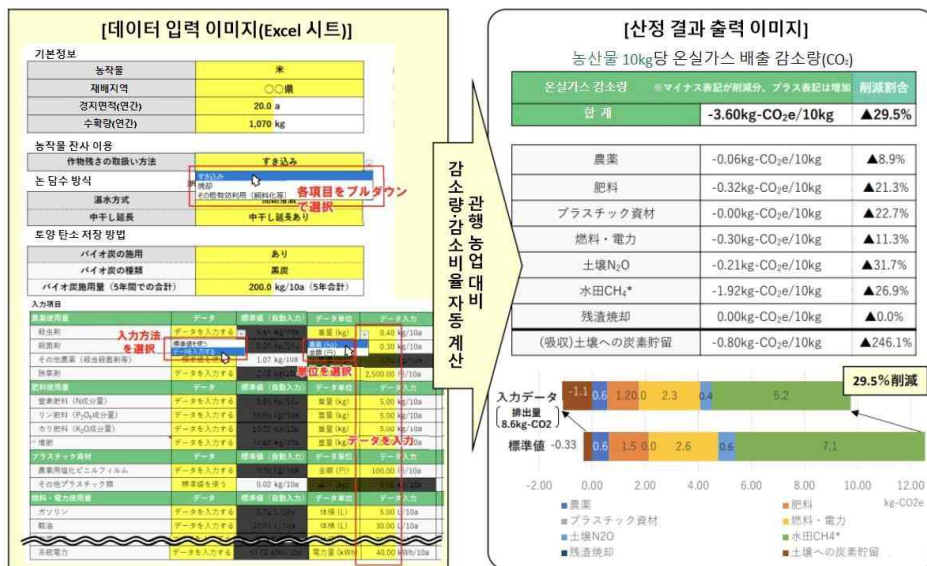
4) 일본 농림수산성 “農産物の脱炭素の「見える化」をしてみませんか”(2022.9.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농림수산성은 2021년 5월, 식량·농림수산업 혁신을 통해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침으로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책정하여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식품 공급망의 탈탄소화 방침 및 알기 쉬운 가시화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지도·조언을 받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탈탄소 검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검토회의 조언 등을 기반으로 식품 사업자, 농림어업자 등이 탈탄소화의 실현 및 가시화에 필요한 참고자료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시트는 생산자가 생산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비료 등 자재 투입량이나 농기계, 시설 난방 등 에너지 투입량 등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됨.
- 지역의 관행 농법을 상정하여 산정한 배출량(기준치-도도부현별 또는 지역별)과 비교하여, 감소량 및 감소율을 산출할 수 있음.
- 현재 대상 품목은 쌀, 토마토(노지, 시설), 오이(노지, 시설) 3가지 품목임.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갈 예정임.
- 분해하기 힘든 형태의 탄소를 장기간 땅에 저장하는 기술인 바이오탄을 농지에 사용하고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재배기술인 중간낙수(물떼기)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함.

농산물 온실가스 간단 산정 시트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9.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